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57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7~11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빅 데이터 기술과 컴퓨팅 연산 기술로 무장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간주되었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창작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베토벤이 미완성으로 남긴 교향곡을 인공지능이 완성하여 오케스트라가 750여 명의 관객 앞에서 이를 초연한 일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 활동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증거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저작권법에서 다루어지는데,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저작권법상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권 법상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물이라면 그 저작자는 인공지능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있는 인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과 창작성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표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먼저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작품을 창작하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마음과 머리를 감동시킨다면 인간이 만든 저작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서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만일 작품 제작에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작품이 저작권법상 창작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창작성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창작성을 인간의 의식이나 자각의 측면에서 정의하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교해진다 해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창작성을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인공지능도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기존의 작품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변경만을 가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만큼 창의적인 형태로의 변경을 가했거나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공지능의 수준과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창작성의 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작품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의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저작권법상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자연인'을 **㉣**지칭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의 경우에, 누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예컨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의 '창작'에 참여한 당사자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개발·코딩한 프로그래머, 일련의 선택 내지 지시와 이미지를 입력한 이용자, 상당한 데이터를 통해서 일정한 패턴을 학습시키는 자, 인공지능 또는 로봇 그 자체 가운데 누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작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그 작품을 창작한 자, 즉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하더라도 그 저작자에게 반드시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특히 저작권을 창작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의 귀속 문제는 창작의 촉진이라고 하는 법

목적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귀속 주체를 찾는 과제일 뿐이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여 사회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대량의 창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에 부여할 경우 독점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창작물을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창작해 내기 때문에 향후 창작 활동의 범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위치에 놓이게 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인터넷상의 무수한 자료를 통해서 학습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창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이용 허락이나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의 쟁점이 **㉤**수반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보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연인: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7. 다음은 글쓴이가 윗글을 쓰기 위해 미리 구상한 글쓰기 계획이다.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현행 저작권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함. ①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글의 처음 부분에 논의의 배경을 제시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전하며 글을 마무리함. ②
독자의 흥미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설명하려는 정보와 관련하여 상황을 가정하여 묻고 대답해 가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함. ③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설명할 것인가?	• 구체적 예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움. ④ • 글에서 다룬 주요 논란을 서두에 제시하여 독자가 내용을 예측하며 읽도록 함. ⑤

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작권법 제2조에 명시된 저작물 요건으로서의 표현 기준은 표현의 주체로 자연인을 전제하고 있다.
- ②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③ 창작 방식과 속도, 창작물의 수량에서 보이는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의 특성은 인간의 창작 활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④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분명해지면 저작권은 그 저작자에게 반드시 귀속된다고 본다.
- ⑤ 인공지능의 창작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빅 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을 위한 무수한 학습 자료가 기반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유인의 제공이라는 실정권론과 창작자에 대한 도덕적으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라는 자연권론이 있다. 실정권론에서 저작권은 사회 발전의 증진이라는 공익을 위한 도구로서 주어지는 실정권에 불과하다. 즉 인간의 노력이나 인격에 대한 보상을 위해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정법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것이다. 반면에 자연권론에서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 노동의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① 실정권론은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공 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겠군.
- ②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대량 생산이 불러일으키는 독점화에 대해 실정권론은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겠군.
- ③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볼 때 자연권론은 저작권이 인공 지능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겠군.
- ④ 자연권론은 기존의 작품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변경만을 가한 경우라도 사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경우라면, 인공 지능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겠군.
- ⑤ 자연권론은 경제적 유인의 제공을 통한 창작 활동의 증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드는 인공 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겠군.

10.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메모한 내용의 일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토론 주제: 인공 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가?
- 나의 주장: 인공 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 주장에 대한 근거 정리
 - ①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의미를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성질로 정의하면 인공 지능도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마음과 머리를 감동시킨다면 인간이 만든 저작물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인공 지능은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과는 다른 내용의 창작물을 표현하고 있다.
 - 예상되는 반론 정리
 - ④ 인공 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의 경우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저작자를 인공 지능 자체로 특정할 수 없다.
 - ⑤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볼 수 없다.

11. 문맥상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늘어남
- ② ㉡: 던질
- ③ ㉢: 뚜렷해진다
- ④ ㉣: 이른다
- ⑤ ㉤: 따른다